

진리침례교회 설교 시리즈

說教

진리침례교회 설교 시리즈

說教

2

주님이 구상하셨던 교회의 모습

김 영 균 지음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진리침례교회 설교시리즈

©2016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2. 주님이 구상하셨던 교회의 모습

지 은 이 | 김영균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6. 11. 20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표지글씨 | 안성식

디자인편집 | 김화영

<비매품>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주님이 구상하셨던 교회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 혼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어디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갈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좋은 결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결정입니다.

주님께서 구상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고 과연 우리는 이런 교회인지, 또한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구상하시는 교회에 동참하고 몸과 마음으로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 요12:1~11

“1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2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중에 있더라. 3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자겨다가 예

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7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 두어라. 나를 장사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9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에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10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11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요12:1~1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모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원토록 마음에 생각하고 구상하셨던 교회,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마땅히 지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알게 하시고 그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깊이 경청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 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공식 행사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실은 이 잔칫집은 교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모임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구상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실 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가롭게 잔칫집에 가서 식사하실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

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계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취급 받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고뇌에 찼을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유 있게 식사 초대에 응해서 잔치를 즐기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 이브를 제공하십니다(물론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밀알로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실현될 것입니다. 혼자(alone)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없이 많은 지체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풍성하게 드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지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모임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간증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 람들에게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인지 본인이 구상하신 그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비로소 죄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교회를 세우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

신의 아들을 위해서 창세 전,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하나이지만 집합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신랑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고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지역교회로서 존재할 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 베다니 집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중에 계산된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에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상하셨던 주님의 갈망 곧, 지역교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이어야 합니다.(1, 2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거나,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소책자를 통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시대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나 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집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밖에 계셔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

니라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잔치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하셨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거나 그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겠습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 있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교회에서 서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별볼일 없지만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귀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못마땅하고 수준에 못 미치고 상처를 주더라도 그런 것은 접어두고 그 형제, 자매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고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서로 잘 섬겨야 하겠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가 당연히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1:9)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구상하셨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라면 각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각자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복음 집회에 참석하셨던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50년 넘게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24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25)

호기심 차원에서 왜 살이 빠졌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진지하게 사랑으로서 걱정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실족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처럼 서로 모이는 것을 힘쓰고 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는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모이는 것을 폐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낳으신 다

른 형제 자매도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낳아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성장이 덜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로 모이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이어야 합니다.(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지혜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잠언 4:22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잠4:22)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필요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약속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군가 “교회”의 한자가 잘못 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할 때의 ‘교’가 ‘가르칠 교(敎)’가 아니라 ‘사귄 교(交)’여야 맞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선 가르침을 통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사귄 것이 있어야 하므로 가르칠 교도 맞습니다. 올바르게 배워야 하

로 가르칠 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3:15)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세상으로 부터 분리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아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저도 10년 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영어 킹제임스성경에서는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기록하지 않고 집이라는 어원을 가진 “CHURCH”를 쓰셨을까요? 집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알려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집은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진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멘트로 만든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living stone” 우리는 “lively stone”이라고 하여 그 돌들 하나하나로 지어지는 영적인 집입니다. 하나님 집의 핵심,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사도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째 목적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빠지고 모여서 즐기고 교제만 한다면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

도 진리의 사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구원받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 쓰여 있습니다. 진리가 빠져 있는 사랑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

구원만 받으면 안 됩니다.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기등과 터인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영어로는 “study” 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있습니다(우리말 번역으로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나눌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유대인, 이방인을 나누는 등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지, 막 섞어서 뒤죽박죽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올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진

리를 배우는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보를 잔뜩 머릿속에 넣어서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성경 많이 알고있는 사람 나와봐!”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합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드높이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경배가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3절)

요한복음 4장 22~24절 -〈22.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23.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24.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첫째는 영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온갖 의식을 가진다 하여도 죽어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영

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와서 경배하고 참석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진리를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 하지 않고 단지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배워가면 그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20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22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총명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히10:19~22)

과거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특별한 허락을 받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 막혀있던 휘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찢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 갈수 있는 길을 얻었다고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경배하고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은혜의 왕좌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아주 초월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경배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진리만 가르치고 머릿속에 진리만 잔뜩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교회가 실패한 원인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고린도교회가 실패한 경험을 본을 삼아서 조심하고 유의하지 아니하면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많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우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라디오나 TV를 통해 설교를 들었을 때 “야~! 저건 설교도 아니네” 하면서 무

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저 또한 예전에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중에 일부라도 맞고 올바른 진리를 얘기하면 그 정도라도 진리를 전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8장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고전 8:1)

‘나는 우쭐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우리끼리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보면 “성경 좀 안다고 엄청 뭐라 하네~”하면서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 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지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자신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있나?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지식은 계속 깊이 파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랑, 즉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쭐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섬김이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2절)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제대로 배운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남”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이(joy)선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joy라는 영어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Jesus(예수님)이 첫째, Others(다른 사람들)가 둘째, You(당신 자신)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순서대로 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joy(기쁨)선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in(죄)”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는 “I(나)”가 있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는 나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여 주셨다고 쓰여 있기에 그 말씀을 믿고 죽은 사람으로 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믿음의 삶이 비결입니다. 왜 섬김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진리침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하던 사람들인데 다 지쳐서 진리침례교회에 와서는 전부 마르다 대신 마리아가 되어서 먹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더라”면서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섬기겠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들었지만 뼈가 있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듣고 기도 하겠습니까?”

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균형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는 진리의 지식의 양에 비해 행실이 못 따라가게 되어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실행에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행위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1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로 더러는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14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6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엡4:16)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셨고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

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몸 된 교회에서 주님 대신 역할을 맡아야 할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12절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도 남을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다고 여길 때 그 교회는 안식과 만족이 넘치게 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남이 “낮”다! 즉, 받침을 “ㅅ”을 써야 하는데 “ㅈ”을 쓰게 되면 내가 위치적으로 남보다 더 높다라는 의미가 되기에 받침 하나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결국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고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성도가 더 이상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16절까지 보면 각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핏 무질서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몸 된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갈 것

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는 데 바빴습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왜 동생은 일을 안 도와 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개를 다 할 수 없으니 한 가지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시며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마리아가 항상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마리아처럼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적 요소(경배)와 마르다적 요소(섬김)가 있고 나사로적인 요소(증언)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한 단면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항상 증언만 하고 마리아는 항상 경배만 하고 마르다는 항상 섬기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할 때는 경배하고 섬길 때는 섬기고 증언할 때는 증언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19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20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21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빌2:19~21)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빌립보교회가 참 아름답고 성경에서 긍정적인 교회이긴 하

였지만 몇 가지 위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의 일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체들에 대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생각하고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영적으로 성숙될 때 즉, 완전한 자가 되어 섬기게 될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섬김이 자발적으로 나오려면 웬만큼 성숙하지 않고서는 모두 자기에 신경 쓰고 챙기기 바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경 쓰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증언이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9, 11절)

마지막으로 증언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요12:9)

성경을 보니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사로처럼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우리도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입술로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고전14:24~25)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단지 여유 있게 잔치를 벌이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얻고자 하는 그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이것이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부를 얻을 기쁨 즉 교회를 얻을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그 교회가 여러 지역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진리침례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처럼 우리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증인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 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옅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여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 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엠.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무엘. 킵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둠의 법칙〉 / 라온누리

